광주 제조업 3분기 체감경기 '먹구름'…BSI 전망치 75

러-우크 전쟁 장기화, 금리인상·환율상승 제품가 불안정성 확대
만선8기 지자체 우선 추진정책 '51.2% 지역 특화산업 육성'해야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2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 전망치가 '75'로 집계됐다.

BSI 기준치(100)가 100을 웃돌면 호전 예상 업체가 악화 예상업체보다 많음을, 100미만이면 그 반대, 100은 이전과 불변함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환율상승에 따른 제품가 불안정성 확대와 경기불황 우려까지 커지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실적은 '90'으로 공급망 병목현상과 내수 및 수출입 부진 등으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3분기 업종별 전망은 'IT·전기·가전(110)', '기계·금형(100)'업종은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식음료(67)', '고무·화학(27)', '유리·비금속광물(88)' ,'철강·금속가공(47)', '자동차·부품(58)', '기타(83)'업종 등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전망으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3'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조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감소가 우려되면서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여부 별로는 수출기업(70)은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와 민간투자 감소가 예상돼 기준치(100)를 하회했으며 내수기업(75)은 생산원가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보다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수의 기업이'목표치 미달(60.7%)'이라고 응답했으며 '목표치 달성·근접(36.8%)','목표치 초과(2.5)' 순으로 답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67.0%가'별로 기대하지 않음'이라고 꼽았으며 '다소기대(22.3%)','기대하지 않음(10.0%)', '기대(0.7%)'순으로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지역 특화산업 육성(51.2%)','입지·시설·환경 관련 규제 해소(48.8%)','외자·기업 투자유치(42.1%)','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16.5%)','지역대학지원 등 인력양성(10.7%)','기타(1.7%)'순으로 응답했다.

최종만 상근부회장은"생산원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고물가 등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라면서"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원자재가 안정, 세제 개선지원,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 2종 출시

금호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 '마제스티9(Majesty9) SOLUS TA91 EV'와 '크루젠(CRUGEN) HP71 EV'를 출시한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와 비교해 낮은 회전저항, 저소음, 높은 접지력과 내마모성 등이 특징이다.

최근 고성능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며 핸들링과 같은 드라이빙 퍼포먼스에도 더욱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마제스티9 SOLUS TA91 EV와 크루젠 HP71 EV는 전기차 특성에 맞게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행성능, 승차감까지 고려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두 제품 모두 금호타이어 스테디셀러 제품을 기반으로 첨단 EV 기술이 집약됐다.

마제스티9(Majesty9) SOLUS TA91 EV와 크루젠(CRUGEN) HP71 EV에는 승차감 및 제동성능 극대화를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EV 최적 컴파운드를 사용했다.

일반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주행안정성을 업그레이드시켰다.

특히 타이어 홈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딤플(dimple) 설계로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했다.

또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행성능 및 마모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 내부에 폼이 부착된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옵션사항으로 마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공명음 저감 타이어란 타이어 내부에 폴리우레탄 폼 재질의 흡음재를 부착해 타이어 바닥면과 도로 노면이 접촉하면서 타이어 내부 공기 진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공명음)을 감소시킨 제품이다.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소음 저감 신기술인 K-Silent(흡음기술)가 적용됐다.

해당 타이어는 오는 8월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조만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전무는 "전기차에 최적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출시한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게 타이어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운전자에게 최상의 드리이빙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물가 급상승에…공영홈쇼핑, 추석까지 '물가안정 프로젝트'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공영홈쇼핑이 추석까지 '장바구니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공영홈쇼핑은 11일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물가안정 특집 판매액이 64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TV홈쇼핑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4월부터 '물가안정' 특집 640억원 판매

공영홈쇼핑은 '장바구니 물가안정' 프로젝트에 화장지, 세제, 쌀, 김치, 탕류, 정육, 구이류, 굴비, 전복, 갈치, 오징어 등 11개 생활 필수 상품군을 선정하고, 전년 수준 이하의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부터 1인당 한 주에 5장씩 '물가안정' 5% 추가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모바일 5% 할인과 물가안정 5% 쿠폰을 중복 적용할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돈 오겹살의 경우 200g 4팩에 1만9900원, 쉬슬러 세제는 세제 4통과 유연제 2통이 2만9900원이다.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더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물가안정 쿠폰은 물가안정 방송 상품과 온라인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된다. 쌀 품목은 쿠폰 적용이 제외된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이사는 "물가상승률이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빠른 추석 명절로 인한 수요 증가는 장바구니 물가를 가중시켜 주부님들의 살림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공영홈쇼핑은 생필품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맞추고 추석명절까지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 장바구니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적극 대응하는 공공판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참 괜찮은 중소기업' 76.6% "올해 4.3명 채용 계획"

중기중앙회, 플랫폼 등재 1000곳 채용동향 조사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 76.6%가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채용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 기업들은 평균 4.3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종의 '생산' 직무(68.6%) 채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직'(52.6%) 선호 경향도 드러났다.

올해 인력 현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57.0%)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13.6%포인트 증가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70.7%는 지난해 필요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기업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인원 비중은 필요인원의 약 82.9%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응답기업의 대다수(92.2%)가 인재 채용 시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시중의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다. 채용절차 진행 시 애로사항은 ▲필요인력에 비해 입사지원자 부족(47.2%) ▲합격 이후 퇴직·이직으로 인한 근속 실패(21.7%) ▲지원자의 직무역량·성향 판단 착오(18.0%) 등을 꼽았다.

응답 중소기업은 인재 선발 시 활용하는 채용절차로 ▲자기소개서, 증명서, 과제제출 등 서류전형(82.0%)과 ▲발표, 토론, 심층 인터뷰 등 면접전형(40.9%)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NCS, 인공지능(AI)면접 등 별도 검증수단 활용비중은 0.8%에 그쳤다.

청년 구직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서류-면접 위주의 채용 시스템'이 여전히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채용절차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서류-면접 위주의 채용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청년구직자는 61.8%에 달했다.

중소기업 역시 효과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지원자의 성향, 역량에 대한 객관적 정보'(40.0%), '채용공고의 폭넓은 홍보'(33.3%)를 꼽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성을 제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본 회가 운영하고 있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청년들과 우수기업을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인재 선발과 청년들의 보다 쉬운 취업 성공을 위해 AI역량검사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채용 인프라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리큅, 무선선풍기 3종 프로모션 실시

일상생활부터 휴가지까지 언제나 시원한 바람 활용

리큅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무선선풍기(팬) 제품 대상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5일까지 리큅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비롯한 리큅이샵(공식몰), 오픈마켓에서 진행된다. 자사 무선선풍기 시리즈 3종을 최대 62% 할인한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인 리큅 선풍기 시리즈 3종은 고성능 BLDC 모터가 적용돼 강력하고 풍부한 바람이 특징이다. 충전식 무선 타입으로 휴대성과 실용성이 뛰어나 실내·외는 물론 이동이 잦은 휴가지 무더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폴더블 무선 선풍기(LEF-R10000)는 7엽 블레이드의 풍부한 풍량으로 공간에 따라 테이블형·스탠드형·벽걸이형이 가능한 자유로운 폴딩형 접이식 제품이다. 완충 시 최대 54시간 사용할 수 있다.

탁상용 무선 데스크팬(LDF-4000)은 2050RPM의 바람과 섬세한 10단계 풍량 조절이 특징이다. 완충 후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미니 무선 핸디팬(LHF-500)은 휴대하기 좋은 컴팩트 디자인과 128g의 가벼운 무게의 제품이다. 완충 시 최대 3시간 사용 가능하다.

리큅은 프로모션 기간 내 리큅 선풍기 시리즈 3종이 모두 포함된 특별 패키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62% 할인과 함께 초음파 모기퇴치기(LMR-C90)를 선물로 증정한다.

이 밖에 리큅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추가 할인 쿠폰 증정과 전품목 '배송비 0원' 무료배송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김재환 기자

대용량 요리도 뚝딱…SK매직 '25ℓ 전자식 전자레인지'

20가지 자동요리 프로그램

SK매직은 대용량의 요리도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 가능한 '25ℓ 전자식 전자레인지(모델명: MWO-FM3A1)'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제품은 25ℓ의 넉넉한 조리 공간과 288㎜로 넓어진 회전 유리, 720W의 고출력으로 많은 양의 음식도 빠르고 균일하게 조리가 가능하다.

각 메뉴별 출력과 조리시간이 설정된 총 20가지 자동요리 프로그램을 탑재해 데우기부터 간편식과 냉동식품, 각종 홈디저트까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0초, 3분 단위로 설정된 다이렉트 버튼과 30초 단위의 간편 설정 버튼으로 보다 세밀한 조리가 가능하다. 또 냉동 육류, 생선 등 식재료의 무게(100~900g)에 따라 해동 시간이 자동 설정되는 쾌속해동 기능과 젖병소독, 스팀타월, 탈취와 같은 생활 편의 기능을 더했다.

화이트 컬러가 적용됐다. 대기전력 또한 1W 미만의 친환경 에코(ECO) 제품으로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뉴시스